현장시선

코로나 대응 강국 넘어 기술강국의 희망 이어갑니다

박 동 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가 어렵사리 개최시기 재연장을 거듭하다 지난 6월에 대회가 종료돼 건축설계, 자동차정비 등 24개 직종 64명의 도대표 선수 선발을 마쳤다.

지난 기능경기대회에서 선발된 기능선수들은 오는 14일부터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제주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제주도는 1981년부터 전국대회에 참가했고, 2009년부터는 통신망분배기술, 요리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018년 전라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통신망분배기술직종에서 금·은·동 메달을 모두 석권하는 영광을 누렸다. 최근에는 용접, 의상디자인, 도자기 직종도 입상하며 다양한 직종의 기술인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자격이 부여된다. 도 대표 선수단은 2011년 제41회 영국 런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통신망분배기술직종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며 제주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65년 김종필 민주공화당 의장 일행이 유럽 순방 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참관하면서 시작된다. 그 대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동 대회에 우리나라 기능청소년을 참여시킴으로서, 기능 습득 의욕을 북돋우고 국가 근대화 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목표에서 예선전 격인 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매년 17개 시·도별로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리며 지난해까지 28만 7000여명이 참가했고, 전국기능경기는 7만 2000여명이 참가하며 전문 기술인력을 배출했다.

1950년대의 국민소득 45달러,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 국민소득 3만달러까지 성장하기까지 눈부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돼온 것은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기능인들의 피 땀나는 노력의 결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인이 우대 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능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해 대한민국명장, 기능전승자, 우수지도자,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및 전통기능전승자 선정도 지원한다. 국민들에게 산업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함과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경제 성장과 숙련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래의 우리사회는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특성화고 기피와 기술기능인력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19번의 우승을 이뤄낸 기술 선진국이며 우리국민들의 손재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화와 스포츠강국에만 머무르지 말고 고숙련 신기술 인력의 세계최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다.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능력중심·실력중심 사회를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

물폭탄 예사로, 침수대책 보다 강화해야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예상대로 강력했습니다. 제주를 지날 때 태풍 강도가 '매우 강'(초속 44~54m)으로 덮쳤습니다. 바람의 위력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비도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1000㎜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물폭탄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이처럼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면서 제주 전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선 바람이 거셌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2일 제주에 가장 근접할 때 최대풍속이 초속 45m로 강도 '매우 강'의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서부지역 고산은 순간 최대풍속 초속 49.2m의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또 제주시 초속 37.1m, 새별오름 초속 38.1m, 우도 초속 32.2m, 마라도 35.9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비 역시 엄청난 양이 내렸습니다. 제주를 통과하면서 당초 기상청이 예상했던 400㎜보다 갑절 이상 많은 1000㎜가 넘는 비를 뿌렸습니다. 1일 0시부터 3일 오전 4시까지 산간지역의 강수량은 한라산 남벽 1033.0㎜, 영실 958.0㎜, 윗세오름 955.0㎜를 기록했습니다. 시설물 파손 등 바람 피해는 물론 비 피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제주를 지나는 태풍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강풍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비도 물폭탄처럼 퍼붓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번에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이 넘쳤습니다. 특히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한천과 병문천 등이 범람 직전의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들 하천 상류지역 곳곳에 저류지까지 만들었지만 여전히 침수 피해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우선 가장 현실적인 침수 대책부터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이젠 비가 내렸다 하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무섭게 내리니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 '일벌백계'하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감염확산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여론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거짓진술을 하거나 불법영업으로 인해 감염 확산을 낳고, 결국 지역사회 감염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최근 도내 게스트하우스와 산방산탄산온천 관련 확진자의 급속 확산 사례는 동선을 속이거나 불법영업이란 지적때문에 지역사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가 도내·외 10명인가 하면 동선을 속인 거짓진술로 나온 산방산탄산온천 관련 확진자는 목회자 부부를 포함해 6명입니다. 한달 전만 해도 해외나 수도권 등 타지방에서 유입되는 단순 경로를 보이다가 최근 지역사회내 감염으로 일파만파 퍼지는 겁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조짐에 비상입니다. 우선 지역사회내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행위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이어 2일부터 제주시 탑동광장, 제주시 버스터미널 한라수목원,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성산일출봉 등 다중밀집장소 23개소를 마스크착용 의무장소로 정했습니다. 도내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도 3일부터 14일까지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시의적절한 방역 강화와 함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합니다. 코로나19 제주지역 사회 확산이란 엄중한 상황을 몰고 온 확진자의 거짓진술이나 불법영업 등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 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난 방역비용 소요와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경제 막대한 피해 등을 방관해선 안됩니다. 방역당국이 구상권 청구와 고발 등의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설 때 방역효과도 배가될 것입니다.

열린마당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

고 은 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온 세계인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간단하고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하기'와 '손 씻기'가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한다. 즉, 개인위생만 철저히 지킨다면 위험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다.

여름철이 되면 그동안 잘 지키고 있던 개인위생도 느슨해지기 쉬우며 그에 따라 음식점이나 집단시설에서의 식중독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얼마 전 도내 분식점에서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어린이집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식중독 사고는 먹거리를 담당하는 조리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지키기, 조리기구·식기류 의 철저한 세척·소독, 식재료 개별 손질 및 보관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집단시설도 마찬가지다.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잘 관리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려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간직해야 한다.

개학 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국의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7000여 곳의 위생지도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도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의 급식실 조리 및 급식기구 등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집단식중독 예방에 앞장서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부처나 행정관서에서의 지도점검 이전에 스스로가 개개인의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이 현재의 코로나19는 물론 주변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코로나19로 힘겨운데 태풍 내습까지…

양성평등 유지 조례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출자·출연 기관의 내부규정과 경영실적 평가 내용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눈길.

강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해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 등이 포함.

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이 앞으로 진행될 도 출자·출연 기관의 여성 관리자·임원 확대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 이태윤기자

10여일새 태풍 3개 영향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 소식에 도민들은 10여일 사이에 3개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해는 드물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제주를 비껴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반응.

특히 8호 태풍 '바비'보다 9호 태풍 '마이삭'이 몰고온 강풍과 폭우로 1차산업 등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속속 확인되는 상황이어서 10호 태풍까지 영향을 받으면 경제적인 피해는 실로 막대할 전망.

한 시민은 "코로나19 상황이 7개월간 지속되며 너나없이 힘겨운 상황인데, 태풍 내습까지 유독 잦아 큰일"이라고 우려. 문미숙기자

마트로 제주 최초 새벽 배송

○…(주)뉴월드에서 운영하는 마트로가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

마트로는 4일부터 온라인몰(martro.net)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새벽 배송의 경우 다음날 7시, 번개배송은 주문 시 2시간 이내에 고객의 집 앞으로 배송.

마트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서비스를 애용해주셨으면 한다"고 전언. 김현석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경수(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4일

부 인 강화옥
아 들 김병훈 며느리 강애숙
김정훈 강윤실
김동표 강경희
딸 김한희 사 위 박봉진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김영기(1959. 4. 4생)
•최후주소 : 익산시 선화로1길 25-14, 409동 1505호 (모현동2가, 배산휴먼시아4단지)

상기자는 2019년 4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9월 1일 전주지방법원 2020느단50137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31, 가동 1층 103호 (시흥리, 성산반석타운)

2020년 9월 4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 민 경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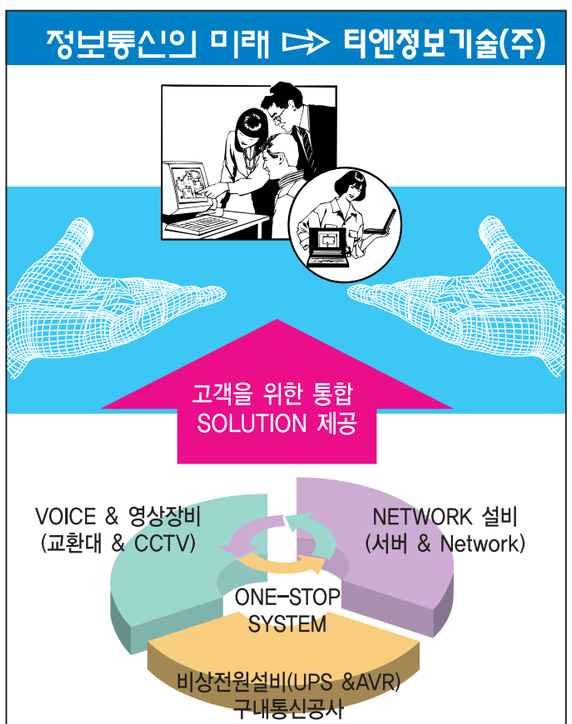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창화(국가유공자, 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4일

부 인 장임용
아 들 양세웅 며느리 강명인
세우 김순자
세준 김영숙
딸 양정희 사 위 김언종
정열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